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 분석¹

박병주, 최슬기, 김득훈, 박진
아주대학교

요약

핀테크는 금융과 ICT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칭하는 용어로 글로벌 ICT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확보중인 폭넓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핀테크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핀테크 서비스 산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 또한 2015년 6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많은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핀테크에 대한 국외 동향으로는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바일 디바이스만을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핀테크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등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액센츄어에 따르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규모가 2015년에는 45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65억 달러, 2018년에는 80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

국외의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 서비스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발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Start-up 지원, 시장 규모에 따른 규제 강화 및 완화 등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2]. 반면, 국내의 핀테크 서비스는 핀테크 서비스 육성 정책 미비, 복잡한 핀테크 서비스 등록 절차와 같은 규제로 인해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이 국외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국내·외 핀테크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II. 핀테크의 개념 및 발전 배경

1.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FinTech)는 단순하게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ICT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넓게는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핀테크는 모바일 디바이스 중심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기술로, 빅데이터, 모바일 디바이스, 소셜 미디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결제 및 송금, 대출, 투자, 보험, 증권 등 금융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고 있다.

Ernst & Young은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Traditional

I. 서론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IC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칭하는 용어로, 최근 글로벌 ICT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ICT 기술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히 결제 서비스를 벗어나 투자, 자산관리, 증권

¹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 ICT 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IIIP-2016-F27181600030001002)

Fintech)와 신흥 핀테크(Emergent Finetech)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역할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3].

표 1.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의 비교

	전통적 핀테크	신흥 핀테크
정의	- 전자적 채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	-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
Positioning	- 기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역할	- 기존 금융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
주요 역할	- 금융 인프라 지원	- 기존 인프라 우회·대체를 통한 직접 금융 서비스 제공
주요 관련 기업	- IBM (IT 솔루션) - Infosys (IT 하드웨어) - SunCard (금융 소프트웨어) - Symantec (정보보안)	- Alipay (지급결제) - Transferwise (외화 송금) - Lending Club (P2P 대출) - FidorBank (인터넷 은행) - CoinBase (비트코인)
수익 모델	- 고객 접점은 금융회사가 주도 - IT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 금융거래 처리 효율성 향상	- 고객 접점을 비금융 회사가 주도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 고객 경험 개선
개념도	- 자금공급자 · 금융회사 · 자금수요자	- 자금공급자 · 플랫폼 · 자금수요자
비고	- PC기반, 금융회사/대형 IT 회사 중심	-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전자금융과 같은 금융서비스에 포함되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로, 기존 금융업무가 ICT 기술을 통해 자동화되고 효율화되는 등 기존 기술의 발전된 형태를 의미한다.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역할로, IT 업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업무를 대신하거나,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신기술들을 의미한다.

2. 핀테크의 발전 배경

SN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모바일 거래 중심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발달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요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환경이 모바일로 옮겨가며 금융기술이 ICT 기술과 함께 접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 또한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각종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2].

3. 핀테크 서비스 분류

핀테크 서비스는 크게 지급결제, 대출, 전자화폐, 증권 및 금융정보, 인터넷전문은행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2].

가. 지급결제 서비스

핀테크의 대표적 서비스로 간편결제와 송금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간편결제와 송금이 같은 서비스로 인식되는 국외와는 다르게 간편결제가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형태에 따른 차이로, 국내의 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반면, 국외에서는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이 충전식 전자지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대출(P2P) 서비스

대출 서비스는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 Club)과 같은 P2P 대출 서비스로 금융 잉여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와 유사하다. 투자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며, 안정성과 신뢰 확보 측면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 전자화폐

페이팔,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를 위해 가상화폐 또는 이메일과 연결해 충전해 결제 또는 송금을 진행하는 수단 또는 비트코인과 같이 그 자체로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술이 존재한다.

라. 증권 및 금융정보

증권 및 금융정보 분야 중 증권 서비스는 주식 투자에 소셜 기능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주가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모바일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정보 서비스는 개인에게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온라인 은행으로 점포 임대료가 없고, 적은 인건

비를 통해 다양한 금융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간단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측면 등 기존 은행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2>는 핀테크 산업 분류와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표 2. 핀테크 산업 분류와 특징

구분	특징
지급결제	- I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디바이스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 없이 송금이 가능
대출(P2P)	-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을 통해 개인 대출자에게 돈을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형식
전자화폐	- 지급결제를 위한 수단 - 자체로서의 가상화폐, 결제플랫폼 역할 수행
증권 및 금융정보	- 주식투자에 소셜기능을 더함 - 주가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개인의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인터넷 전문은행	-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 진행

III.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동향

1. 국내 핀테크 서비스 동향

가. 지급결제 분야

지급결제 시장은 국내·외 핀테크 서비스 분야 중 가장 발전하였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지급결제 시장 규모가 2014년 3분기 대비, 2015년 3분기에 58.4% 증가하는 등 다른 핀테크 산업 분야에 비해 발전의 정도가 두드러진다. 국내 지급결제 시장의 경우,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간편결제, 송금으로 분류되는 지급결제 분야 중 간편결제 서비스에 연구, 개발 및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가.1. 간편결제 서비스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 중 간편결제의 경우,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CT 기업, KT, LG, SKT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카드사, 은행, VAN 사 등 다양한 기업 및 은행에서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하는 등 2015년 6월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와 함께 높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3>은 대표적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와 서비스 업체를 나타낸 표이다.

표 3. 간편결제 서비스 분류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업체
통신사별	KT페이	KT(Olleh)
	T페이	SKT
	페이나우	LGU+
카드사별	Kmotion	국민카드
	페이올	BC카드
	FANpay	신한카드
플랫폼별	네이버페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다음카카오
기타	삼성페이	삼성
	페이코	NHN

<표 3>의 다양한 간편결제 업체들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국외 간편결제 업체들에 비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의 대표적 간편결제 서비스를 분석한 내용이다.

• 삼성페이

삼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기존의 카드 결제 방식인 MST 방식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MST 결제 방식 지원을 통해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의 90%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토큰화 기술 및 지문인식 등을 이용해 보안성을 강화시켰다. 마그네틱 결제 방식인 MST 방식을 이용해 ATM에서 출금도 가능하다. 2016 USENIX에서 기존 스키밍 공격을 활용한 취약점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여전히 전체 오프라인 결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4].



그림 1. 삼성페이 결제 프로세스

• 네이버페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기술로, ID,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송금 및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Firm banking으로 계좌 간에 직접 돈이 오가는 방식이다.

가.2. 송금 서비스

지급결제 분야 중 송금 영역의 경우, 대부분 상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은행 중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직접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비해 수요가 적다. 다음은 국내의 대표적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분석한 내용이다.

• 토스(TOSS)

Viva Republica라는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처음 계좌를 연동한 후, 상대방의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간단한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다. 상대방에게 송금받은 금액은 Toss 잔고라는 데이터 공간에 저장되며, 사용자가 처음 연동했던 계좌로 출금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송금을 해야 할 경우, Toss 잔고에서 인출해 송금할 수도 있다. 최근 Toss는 금융사기 계좌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띄우거나,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그림 2. 토스의 입금 대상 선택 화면

나. 대출(P2P) 분야

클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 금융시장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350억원에서 2016년 11월 3,900억 원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P2P 대출은 유사수신행위² 측면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했으나 2016년 5월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보다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 서비스 업체로는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어니스트펀드, 소형빌라 신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테라펀딩 등이 있

으며, 상기 개인신용대출, 소형빌라 신축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P2P 대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다. 전자화폐 분야

국외 전자화폐의 대표 사례인 미국의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와 다르게 국내 전자화폐 시장은 사용자의 계좌와 직접 연결해 모바일 지급결제 등을 진행하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특성상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컬처랜드, 해피머니와 같은 문화상품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상화폐 자체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거래소가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이 채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화폐도 등장해 2016년 3월 국내에 이더리움 거래소도 마련되었지만 비트코인에 비해 큰 활성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라. 증권 및 금융정보 분야

증권 및 금융정보 분야의 경우 기존 모바일 banking에 결합된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최근, 증권, 금융정보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고 있다. 프리캡, 스텝 등의 증권 서비스들은 주식투자에 소셜 기능을 더해 사용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큰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주가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정보 서비스는 대부분 기존 모바일 banking 애플리케이션들이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순하게 제공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가입하거나,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마. 인터넷전문은행 분야

최근,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K뱅크 및 카카오뱅크는 2017년 상반기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를 극대화한 100% 비대면 종합은행으로 24시간 내내 계좌 개설, 예금, 대출,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간편 소액 대출, 수수료 0%대의 직불 결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은행법의 규제 등에 의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국외 핀테크 서비스 동향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가 되어 핀테크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폭넓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

2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다. 플랫폼, SNS, 이동통신사업자,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표 4>는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금융업 참여 현황을 요약한 표이다.

표 4.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금융업 참여 현황

업종	기업	참여 현황
플랫폼	Google	- 전자지갑인 구글월렛(11), 이메일 송금(13) 출시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Apple	- 아이폰 기반 애플페이 출시
	Baidu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 출시(13)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
이동통신사업자	Verizon	- AT&T 모바일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아이시스(SIS) 출시(12)
	Safaricom	- 지급결제 및 전자화폐 서비스 출시(07)
전자상거래	Alibaba	- 지급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출시(03) -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출시(11) - 온라인 전용 MMF 위어바오 출시(13)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
	eBay	-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98)
	amazon	- 지급결제 서비스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14)
SNS	Facebook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14) - 호주, 터키 등 다양한 국가의 핀테크 사업과 결합
	Tencent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출시(13)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

가.페이팔

페이팔은 미국 최대 오픈마켓인 이베이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로 본인을 인증하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결제시마다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현재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쇼핑몰에서 이용되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온라인 결제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만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송금, 지불청구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페이팔 계좌를 활용해 신용카드로 송금, 입금,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판매자에게는 결제 금액과 결제 완료 여부만이 통보되어 구매자의 개인 정보는 판매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3,000명 이상의 온라인 부정거래 위험 관리 인력과 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부정거래방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높은 신뢰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알리페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제공중인 알리페이는페이팔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의 알리페이 계좌에 미리 입금해 높은 금액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현재는 송금이나 결제 외에도 대출, 펀드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며, 중국 내 온라인 결제 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결제 대행사인 이니시스와 제휴하는 등 전세계 각국의 협력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트랜스퍼와이즈

P2P를 이용해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중간의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기존 은행 수수료의 10% 수준의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 국외 송금의 경우, 실제로는 국외로 송금을 하지 않고 다음 <그림 3>과 같이 같은 과정을 통해 송금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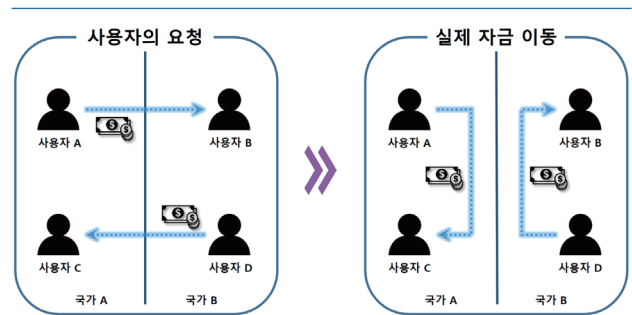


그림 3. 트랜스퍼와이즈 국외 송금 과정

라.은행과의 협업 사례

국외 은행들의 경우 핀테크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M&A 등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다음 <표 5>는 국외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 사례를 나타낸 표이다.

표 5. 국외 은행의 핀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

구분	경쟁력 강화 사례
SNS 활용	- 호주(커먼웰스): 페이스북 뱅킹서비스 활용 - 캐나다(RBC):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송금서비스
M&A	- 미국(캐피탈원): 네덜란드의 인터넷전문은행 ING DIRECT 인수 - 스페인(BBVA):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Simple 인수 - 러시아(스베르): 페이스북 뱅킹을 도입한 터키의 데니즈 은행 인수

IV. 국내·외 핀테크 정책 동향

1. 국내 핀테크 정책 동향

가. 금융서비스위원회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이후,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고, 국외진출 등 국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준비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 ‘핀테크·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혁신적 금융 서비스 혜택 확산’과 같이 세 가지 중점 과제 추진 등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

또한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통해 금융 규제의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 허가 심사항목 수가 2014년 72개에서 2015년 32개로 감소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특허정보원, 법무법인 사이에 국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핀테크 서비스 개발 표준 API를 제공하는 등 빠른 핀테크 서비스 출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금융보안원

‘금융 IT·보안 10대 이슈 전망’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노린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표적형 랜섬웨어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발표하고, FDS 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6].

표 6. 미국, 영국, 중국의 핀테크 도입 현황

국가	도입 현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 밸리와 뉴욕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노력중 - 2013년 기준,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 중 83%가 미국에 집중 -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단계적 규제 정책 시행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산업 종사자 13만 5천명 추산 - 핀테크 거래규모 2008년 이후 매년 74% 성장 - 거대 금융사 지원을 배경으로 성장 중 - 금융 감독체계 분리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 - 핀테크 스타트업 클러스터 도입 후, 핀테크 거래 규모 3배 증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적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ICT 플랫폼 사업자들이 핀테크 사업자로 진화하며 발전 - 자율적 시장 조성, 최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등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정책 시행

2. 해외 핀테크 정책 동향

핀테크 강국들의 경우, 우호적인 정부정책과 높은 투자율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 미국

미국은 영국에 비해 핀테크 산업 발전이 느린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다방면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노력 중으로, 페이스북 등 영향력 높은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시장은 뉴욕, 실리콘 밸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뉴욕의 경우에는 ‘Start-up America’, ‘미국 투자 인센티브 제도’, ‘NY Fund’,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ICT 기업들의 연구소와 정부 펀드를 기반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잡스법(JOBS: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이 2013년 4월 5일 발표되어 중소기업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금융규제 정책의 경우 규모가 작을 때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규모가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규제 시스템을 적용해 핀테크 사업이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7].

나. 영국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IT 융합을 통해 핀테크의 높은 발전률을 기록하고 있다. 핀테크를 통한 거래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74% 성장을 기록해, 세계 성장률 27%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 규모 또한 2008년에서 2013년 동안 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은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 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금융행위 감독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이원화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행위 감독기구에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일정기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Regulatory Sandbox’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8][9].

다. 중국

중국은 2015년 10월 제13차 5개년 계획(13.5계획)에서 ‘인터넷+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ICT 기술 도입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핀테크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P2P 대출 분야의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며 10개 부처 및 기관에서 공동으로 ‘인터넷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에는 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에서 P2P 대출 관련 금지 조항을

표 7. 국내외 핀테크 현황

		국내	국외		
			미국	영국	중국
주요 발전 서비스 분야	분야	- 간편 결제 분야 위주로 발달	- 핀테크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발달	- 지급결제, 증권 등 고르게 발달	- 지급결제와 P2P대출 분야 위주
	사례	-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어니스트 펀드 등	- Google, Facebook, eBay, ApplePay 등	- Transferwise, Funding Circle 등	- Alipay, 중안온라인보험 등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다양한 핀테크 중점 사업 추진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폐지 등 규제 완화 중	- 다양한 분야에 적절한 정책 배치 - 시장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규제	- 정부와 은행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 성장 -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감독 체계 분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 - 관리 감독 측면에서의 법안 추진
장점		- 기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되어 있음	- 세계 최대의 투자 규모 - 연구 기반 인프라가 최적화 되어 있음	- start-up 지원 활발 - IT기업이 아닌 은행 및 정부 주도형 발전	- 정부의 IT기업 지원 활성화
단점		- 복잡한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딤	- 지역에 따라 불균형한 성장	- 기존 금융권의 영역 침범으로 인한 분쟁	- 관리·감독 법안 미비

포함하는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의 초안을 발표했으며,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핀테크 시장 유지 및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부 주도 사업,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10].

비스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 및 개발을 통한 빠른 발전을 위한 노력과 같이 핀테크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V.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핀테크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책 마련, 규제 완화, 기반 연구 인프라 확충, Start-up 지원 등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핀테크 강국인 미국, 영국, 중국의 경우 핀테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적절한 규제 완화 및 강화를 통해 빠른 발전과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핀테크 서비스는 이미 기술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전통 금융 서비스와 복잡한 절차,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태이다. 또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핀테크 중점 과제 추진, 핀테크 서비스 개발 표준 API 제공,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해제, 클라우드 펀딩 완화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시행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외 핀테크 관련 정책과 다양성 비해 미비한 점이 많다.

국내 핀테크 영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정책 및 규제를 통한 핀테크 서비스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가 간 정책 및 규제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기술적, 정책적 솔루션을 선점해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와 성장 정책 마련 등을 통한 장기적 발전을 위한 노력과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서

참고 문헌

- [1] Accenture, "Partnership Fund analysis of CB Insights data," 2015.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분야 발굴," 2016.02.
- [3] Ernst&Young, "China and UK FinTech," 2016.11.18.
- [4] Daseson Choi, Younho Lee, "Eavesdropping One-Time Tokens Over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in Samsung Pay," 10th USENIX Workshop on Offensive Technologies, 2016.08.09.
- [5]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1년의 변화 - Big 7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2015.12.
- [6]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육성」 추진성과 점검 결과," 2015.12.23.
-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ICT Spot Issue," 2016.04.
- [8] 양효은,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16.11.8.
- [9] 정유신, "핀테크의 확대 추세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금융투자협회, 2016.
- [10] 한국인터넷진흥원,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Fintech편," 2015.05.

약 력



박 병 주

2016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졸업(학사)
2016년~현재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암호프로토콜, 핀테크 보안, IoT 보안,
응용시스템 보안



최 슬 기

2013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졸업(학사)
2015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졸업(석사)
2015년~현재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스마트폰 보안, 리눅스 시스템 보안,
응용시스템 보안, 디지털 포렌식



김 득 훈

2013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공학사)
2015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석사)
2015년~현재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암호프로토콜,
사물인터넷 보안, 응용서비스 보안



곽 진

2000년 성균관대학교 졸업(학사)
2003년 성균관대학교 졸업(석사)
2006년 성균관대학교 졸업(박사)
2007년~2015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2015년~현재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관심분야: 암호프로토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제품평가, 클라우드 보안,
자동차 보안